

감사의 글

미흡하지만 석사 논문을 마치면서 감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누구보다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논문을 쓰면서 부족한 많은 점들을 언제나 세심하고 꼼꼼한 손길로 지적해주신 송규동 교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상한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손장열 교수님과 전진용 교수님, 안병욱 교수님에게도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또 학부와 대학원 생활동안 저의 인생의 거의 모든 부분을 채워주신, 때로는 정말 가까운 선배님으로, 때로는 근엄한 교수님으로 언제나 우리 학생들의 바로 옆에 계시는 신성우 교수님, 박재승 교수님, 김용승 교수님, 양내원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준 민성, 동철, 종주, 정원오빠 연구실의 일꾼 주윤오빠, 광덕오빠, 여자가 없는 연구실에서 나의 수다를 모두 들어줘야 했던 나의 입학 동기이지만 졸업 동기가 못되어서 너무 서운한 정호오빠, 연구실을 파닥채워나가는 우리 94동기 남지, 상원, 근일 나의 애니와 음악 동지 영주 그리고 이쁜 후배들 연주, 혜원에게도 무지무지 감사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또 항상 서울 연구실에 들를 때마다 언제나 저에게 칭찬만 해주신 승민이 언니, 멋쟁이 영태형, 정현이오빠, 애기엄마가 될 난행언니, 선효오빠, 부지런한 금융이, 썰렁맨 희운이오빠, 다정한 경석이오빠, 논문 마치거든 감사의 글에 꼭 넣어달라던, 서울에서 언제나 즐거운 실험 안하는 실험조교 성용오빠, 실험만 하는 진우오빠, 안산연구실의 성실한 은석오빠, 다시돌아온 쌤! 준용오빠, 그리고 모든게 시원찮은 나를 많이 도와준 나의 졸업동기 성훈오빠, 황기오빠 모두모두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들, 내가 우울할 땐 언제나 모든 애길 다 들어주고 동조해주었던 나의 오랜 친구 은실이, 지금은 어디 하늘을 날고 있을까? 세은아 무사히 다녀와라! 우리들의 살림꾼 보영이, 얼굴 보기 힘든 은미, 효정, 애기엄마 성애, 효숙, 일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미진, 그리고 나의 동기들, 멋진 호현! 넌 다 해낼꺼야!!, 이번에 무언가 이뤄낼 우지, 94 1호 아줌마 땅콩, 94카페의 지주들 모델러 병훈, 정인, 진영, 형대, 나 줌 고만 괴롭혀! 현

준, 술만마시면 내 눈썹이 못마땅한 신호, 우리의 예술인 대상, 젊은 오빠 명국이형 모두들 작게나마 나에게서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힘든 대학원 생활에서 언제나 말없이 내 옆을 지켜주었던 재환오빠, 지금은 힘들어도 좋은 날 올꺼.

끝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족들, 지금은 군대에 가있지만 언제나 오빠처럼 친구처럼 내 모든 말을 다 들어주고 언제나 든든한 무언가가 되어주는 나의 동생들 동훈, 동욱, 그리고 철없는 딸의 투정에도 늘 사랑과 헌신으로 끊임없이 주시기만한 아빠와 엄마께 가장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0년 6월

양 혜 인